

기획-대학가 개인주의를 생각한다

情理에서 합리로 동지에서 동료로

서구화·미국화·되여가는 대학의 현재

대학은 학문연구와 인격도야의 장일뿐 아니라 지성사회에서 이러한 비평적 지성으로 현실참여라는 또다른 사명을 가진다. '진리, 나의 빛'이라 상징되기도 하는 대학의 이념은 이 두 역할이 양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생생한 어휘아래 총체성을 띠는 것이라. 우리가 지나는 현대사와 대학사가 결코 무관하지 아니하고 사회가 부가(無垢)하지 않은 만큼 우리의 대학은 어느 국가보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지성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조류를 보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 기능인의 교육이라는 실용주의적 대학관이 자본주의와 더불어 팽배한 개인주의, 배급주의와 축이 맞물려 대두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사회에 기여할 지식의 실용적 측면도 대학이 담당할 몫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실용적 대학관의 기초가 이 나라에 처음 대학을 설립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서구식 사고방식에 있음을 기억할 때 또 점차 우리의 생활패턴이 서구화·미국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 자본주의 사회가

빛어내고 있는 출세우월주의와, 경제적 자유가 모든 가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작금의 세태는 동료는 경쟁자요, 친구는 정보교환자라는 비인간적 사회풍토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의 단절이 두드러지며 현대의 윤리는 정리가 아니고 합리가 되어 버린 추세이다.

단절의 모습들

대학생들의 이기적 개인주의 모습들은 당연하게도 그들이 자라온 토양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사회의 교육현실에서 그들이 보고 듣고 가르침받은 것은 생존의 냉정한 싸움터이며 결코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어쩌면 일인자 그릇된 역사관과 반공의식과는 달리 훨씬 깊숙히 뇌리에 박혀져 있고 쉽게 교정이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지내온 교육과정에서 내내 대학생활을 목표로 진행이 되어왔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입시공부를 중용하여 온 탓에 대부분 그들의 목표는 맹목적인 대학진학이었다. 막상 대학을 진학하면 그들은 대학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선배를 조심하라'는 오리엔테이션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어떤 학우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대자보나 집회, 동아리 쪽은 눈길도 안주고 강의실과 도서관을 다닌다. 또 어떤 학우는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에 눈을 떠 학사보다는 정사에 열심이다. 신입생이 대학에서 변화하는 과정에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운동권과 비운동권으로 갈리면서 부터이다. 저쪽이 이쪽의 공리(公理)를 타박하고

해 대학생은 돈이 많다. 각 학교 앞마다 술집과 여관은 왜 그리 많은지, 최근엔 포카와 마이티를 비롯한 도박도 횡행하는데 모태 학 공대 출신들은 이 도박을 통해 엄청난 과학적 지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관동도 적지않은 그들의 도박판은 그들이 사회에 진출해서도 엘리트 도박판으로

의 세계로 떠난 사람도 있고, 전 공에 매진하는 이도 있다. 비교적 일관된 대학생활을 해온 사람이란 자기 삶에 후회는 없겠으나 고학년이 될수록 동료간의 동질감이나 동지감은 희박하다. 날로 더해가는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인들이 받는 압박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바 안팎으로 여유가 없다. 컴퓨터, 디자인, 어학 등의 취업특강에도 열심히 다녀보고 운전면허 취득에도 바쁘다. 이제 심정적으로나마 동행했던 생활문화운동에 상관없이 거리낌없이 자기용으로 종교하고 평점을 높이려고 평소 긴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동료나 교수님에게도 학점

대학인에게 있어서 분명 대립적 성격의 두 얼굴이 공존한다. 저항의 의지가 가득한 행동가의 얼굴, 그 얼굴이 역사성에 뿌리박고 있다면 생활속에 뿌리박은 또 하나의 얼굴이 있다. 그것은 민중이나 조국보다 '나'를 중심으로 사유한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 또 이름의 도시생활, 그속에서 양심과 편리의 간극에서 갈등하지만 생활의 뿌리는 의식과 행동의 단절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인이란 자정 능력을 지닌 사회정화의 첨병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며 대학문화와 의식은 홍탕을 속의 한줄기 맑은 물로 주변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혼탁하고 이기적인 사회지만 대학인은 아직 인간관계의 단절에 익숙해서는 안된다. 동료관계, 이성관계, 선후배관계, 사제간의 관계가 사회에 나가서의 인간관계의 기초인 이상 공동체적 삶을 위해서 누구보다 대학인이 먼저 사랑이 바탕이 되는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뿌리지는 유인물과 대자보, 스크럼을 잔 학우들의 표도, 대동놀이에서 어우러진 그들의 젊음이 아름답고 진취적인 것처럼 도서관에서 강의실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젊음도 상상하고 아름답다. 이 모든 모습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한 노력일때 더욱 그러하다.

독자수필



3월 수원캠퍼스 회상

따사로운 봄햇살의 기운이 캠퍼스 곳곳에서 꿈틀거리는 3월. 초록의 싱그러움이 하나둘 새생명으로 몸짓과 함께 학우들의 모습 또한 봄의 피어남처럼 무척이나 활기에 가득차 있는 것 같다. 지난 87년 12월 2년 동안의 대학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군입대를 한 나. 근 3년에 달하는 시간을 학교를 떠나 군생활을 했던 나로서는 이제 다시 찾는 캠퍼스생활은 무척이나 새로운 감회와 함께 또다른 대학생활의 열정을 느끼게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는 국민 모두가 '민주화'에로의 열망이 최고조였다. 팔손노인들은 물론 어린학동들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손을 잡고 뜨거운 목소리로 "민주"를 실천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 열망의 빛은 희석되고 그대 그 모습속에 가슴 뜨거운 의제들은 지난 시절 아련한 기억으로 자리를 감춘듯 하다. 특히나 이제 북학후 한달동안 나의 눈에 비친 우리대 학우들의 모습은 지난시절의 모두가 하나된 모습은 거의 사라진 사분오열의 모습이고, 개인주의에서 더 심한 이기주의적인 행동으로 점점 그 모습을 달리하여 가는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은 지난주 수요일 총학생회 발대식을 지켜보면서 접할 수 있었다. 예전에만 해도 대다수의 학우들이 참가하여 우리 학우들의 총체적인 자치대표기구인 총학생회 출범을 기뻐하고 그 자리를 함께 하였지만 웬지 그날의 자리는 1천명을 선 회하는 학우들이 자리했지만 총학생회 출범식이라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그날 학우들이 보여준 관심과 참가의 열의로 보아 공백한 집회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실감감에 그날의 기분은 몹시 언짢았다.

'북학후 지난 시절 하나된 모습은 사라지고...'

잠시 지난시절 이곳 서천골 배움터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지금의 학생회관, 도서관(건축중), 자연과학관은 없었다. 공대와 자연대가 이공교육관이라 불리었던 현 공과대학관을 같이 썼었으며 동아리방들은 이공교육관 3층옥상방을 이용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회관의 건축으로 학생회와 각 동아리가 한곳에 집중되어 우리의 활동을 한바탕에서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나름의 큰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의 모습과는 달리 내적인 면에서는 발전은 커녕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왠지 더 욱더 가슴에 와 닿는다. 뜨겁게 불어날 할 청년의 가슴은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사고는 척박한 상태로 실존은 철저한 방관으로 흐르는 작금의 우리의 현실, 가치와 실제의 혼돈,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판을 치는 모습은 좀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어우러져 살아있음을, 인간임을 느끼고 살고픈 나의 소중함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느낌에 몹시나 무력감을 갖게한다. 며칠전 오랜만에 대지를 축축히 적시는 봄비가 내렸다. 얼마간의 학교생활을 통해 파삭 파삭 만져가 일만큼 황폐해진 나의 가슴을 갈고없이 적어주는 비가 무척이나 반가웠다. 메마른 땅속으로 비가 스며들어 튼튼한 나무뿌리를 키우듯 파삭 뿌리내린 우리 가슴에 결코 멈출 수 없는 민주주의의 의지를 담은 비가 우리대 마음에 뿌려질수 있다면... 20대, 그리고 청년의 젊음. 마치 빼앗긴 듯, 잃어버린 듯 느껴지는 허탈한 빈가슴에 분명 다시금 또다른 절실함이 반드시 가득 채워지리라 믿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새로워진다는 것, 새로워질수 있고 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다짐의 희망은 향긋한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오늘 겨우내 동면을 깨고 일어서는 준엄한 역사의 진리와 함께 뜨거운 몸짓으로 일어날 것이다.

서 중 국 <산업공3>

참생명 담은 '광·대설날'공연

극단 '청과 양로'는 김지하작 '광·대설날'을 개관 5주년을 맞은 청과 소극장에서 오는 31일까지 1일 2회(4시30분, 7시30분) 공연을 갖는다. '광·대설날'은 정감록, 동학, 증산등 우리의 전통사상에 뿌리를 두고 김지하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참생명의 세계관을 빚어 펼쳐보인 작품으로 연출은 김태수씨가 맡았다. 서울 영동의 해경사 수산이의 내력을 훑으면서 목포의 거리, 공설시장, 생기장터등을 거쳐 철락의 역사와 고해에 찌든 우리의 모습을 들추고, 각설이로 풍자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원작 '대설날'은 판소리 아니리조로 쓰였으나 판소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의 큰 이야기로써 호른은 장타령, 액막이, 민요, 동요, 탈판, 소리마당까지 두루 소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작품의 주연을 맡은 황병도씨는 우리는 서양의 이원론적 사고에 학습되어 왔지만 원래 고대로부터 유기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번 무대에 올려지는 '광·대설날'에서 나름대로의 광대설을

퍼고 있다. (공연문의:312-8181)

'러시아 집패설'출간

박남철씨의 '러시아집패설'시집이 청하출판사에서 지난 3월10일 발간되었다. 두번째 개인 시집 '반시대 고찰'(홍경래:1988)이후에 씌어진 '비평시'를 제외한 글이 모아진

문화단신

본 시집의 저자는 본고 국문과동문이다. (가격:2,500원)

민주세력 총단결을 위한 노래 한마당

한국 민족 예술인 총연합회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자 우리 손을 잡자'(민주세력 총단결을 위한 노래 한마당)가 오는 30일과 31일 오후5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공연된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민족 음악 연구회' 정태춘씨등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은 그동안 따로따로 활동해 오던 진보적 음악인들이 '민



족 음악 협의회'라는 기치아래 한 대회를 이룬 후 처음 열리는 음악행사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한편 연출가 문호근씨와 화가 최병수씨는 그림 '장산곶매'와 연세 노천 극장 특유의 분위기, 조명, 슬라이드등의 효과를 결합시켜 지금까지 미흡했던 분위기 연출에 이번 공연에선 '예술적 완성'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 (공연문의:723-2972)

단소 무료 강습

국악 동호인 모임인 '풍류회'에서는 4월1일부터 매주 월·목요일 오후 6시, 7시30분에 단소 무료 강습을 개최한다. 국악의 전수와 보급을 통한 민족문화창달에 기여코자하는 본 단체는 폭넓은 대중 참여를 위해 연간 5회의 대금 강습과 29회의 단소 및 피리 강습을 한바 있다. (문의전화:738-9847)

교육현실·취업난이 개인주의 부추겨 공동체 문화가 사회 정화의 첨병

이쪽은 저쪽의 경쟁성을 공박하는 사이 단절의 틈은 깊어지고 나뉘대로의 문화를 찾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밖의 문화라는 것이 음주와 담주, 그밖의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것이 거개가 아니던가, 다행히(?) 과외수업으로 인

어지기도'한다. 이렇듯 향락문화에 젖어 청춘을 개탄할 즈음 대학생들의 절반은 지나가 버린다. 이즈음 단절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각자 걸어가는 길이 많이 다르다. 끌려가는 학우가 있노라면 실천

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 함께 어게 걸었던 친구, 술친구, 당구친구도 재가기 바쁘다. 대자보보다는 게시판을 본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집단의 공동체성이 단절되어가는 이면에는 분명 개인의 사회와 인간관계에서 겪는 방향의 그림자가 드러나 있다.

페넨은 특유한 냄새를 지니는 무색결정성으로 염료, 실리실산 등 중요 유기물질은 비롯, 페넨수지, 비록시수지, 카보네이트수지, 살균제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지난 2월에는 환경청으로부터 유독물로 지정되었으며, 동물 실험결과 피부암과 생식이상을 일으키고 태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 유독성 유기 화합물질이 곧 페넨인 것이다. 수생생물을 지닌 페넨이 상수원에 유입되어 소독제인 염소와 결합하게 되면 화학변화를 일으켜 페넨보다 악취가 5~6배에 강하고 독성 또한 2배에 가량 강한 클로로페넨이 생성되며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산화 염소나 환산화제를 투입해야한다. 방부제로 쓰이는 클로로페넨은 그 농도가 1ppm을 넘으면 암이나 중추신경장애 등 신체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미국은 더클로로페넨의 경우 어린이 섭취허용량을 0.03ppm, 트리클로로페넨은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2일 개최한 '수질전문가대회의'는 "페넨에 의해 오염된 수돗물은 일정한 화학처리를 거쳐 고온으로 가열하면 생활용수로 쓸수는 있으나 식수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끓여도 유해성분은 증발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페넨 사용량은 전자석유화학, 플라스틱·염료·페인트 제조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페넨 배출업소는 88년 95곳에서 89년 1백33곳으로 40%, 하루 페수량은 8천2백톤에서 3만8천3백톤으로 무려 4.5배 증가하였다. 반면 페넨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극히 미비하다. 페넨을 예로들더라도 우리나라의 염류수 수질기준은 0.005ppm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보다 2.5배, 미국, 프랑스보다5배, 유럽공동체 기준보다는 10배나 높으며 그나마 오염도 조사조차 한달에 한번 실시하는 등 감시가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량으로든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시급하다 하겠다.

최 명 숙 <산업정보대학원 5기>

"스물 한살의 봄은 한번 뿐..."



▲아빠의 회사를 찾은 은이랑
▼(좌)대우정리주 상무(투자사업부장)와 올해 대학에 입학한 큰딸 정은이랑



"아빠의 대학시절은 참아려웠지. 옷이 마땅치 않아 군복을 물들여 입고, 복사기도 없었어 필요한 자료를 일일이 다 손으로 옮겨 적어야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낭만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 어쩌다 여유라도 생기면 고무줄처럼 걸린 토끼고기찌게에 막걸리를 시켜놓고는, 감문음박 열면 토론토로 받아 세는 줄도 몰랐지. 너와 함께 교정을 거닐어보니 문득 그때의 젊은 열기가 배어나오는 듯 싶구나. 아빠가 열사의 나라 리비아 모래사막을 뚫고, 낯선 땅 나이지리아에서 술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도 그때의 젊은 열정과 패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아버지처럼 나에게도 스물 한살의 봄은 영원히 한번 뿐,

항상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맑고 밝은 눈을 가져야지. 왜 학문을 하는가, 공부하는 무엇인가도 많이 생각해 보고... 아빠 때보다 값진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피며 사회로 나왔으면 좋겠구나."

성실하게 뿌린 씨앗만이 성취의 보람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애써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이명의 많은 이들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